AV 7대 품목 세계수요예측

〈본회 전자산업연구소〉

CRT 컬러TV

1. 세계수요동향

≪2001 ~ 2002년의 동향≫

2001년의 CRT 컬러TV 수요는 1억 1,967만대로 전년대비 96.4%로 과거 최고수준에 달했던 2000년부터 반전되어 3년연속 마이너스성장을 하였다. 2001년 9월의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테러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지만 플랫패널TV가 신장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2002년 CRT 컬러TV 세계수요는 1억 2,280만대로 전년대비 102.6%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2000년에 대하면 99.0%이고 2001년의 감소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소비심리가 저조하고, 플랫패널TV가 전년대비 200%를 넘는 순조로운 신장을 보이고 있는 등 CRT 컬러TV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2003 ~ 2007년의 동향≫

전제로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2002년을 저점으로,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예측했다.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진국에서 TV전체의 수요는 포화상태에 달해있고, 교체구매 수요 등에서는 플랫패널TV로의 수요전환이 서서히 진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CRT컬러TV의 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이 될 것이다. 한편, 아시아·동유럽·중남미 등의 지역에서는 인구의 증가와 흑백TV에서 교체구매 수요도 크고, CRT 컬러TV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CRT컬러TV의 전세계적인 수요신장은 서서히 둔화되어 2007년에는 1억 2,638만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PDP·LCD 등 플랫패널TV를 더한 컬러TV 전체로서는 연 2~3%의 성장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

2. 지역별 수요동향

(1) 일본

2001년 9월의 미국 동시다발테러의 영향으로 악화된 경제불황은 더욱 장기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도 연속적으로 하락하고있고, 실업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에서 오는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개인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기는 저조하고 경기회복시기는 더욱 늦어져 2004년 이후에 될 것으로 추측된다.

《2002년》

CRT컬러TV는 6월 월드컵 등에 의한 교체구입 수요의 일부가 플랫패널TV로 분산된 점, TV 전체 수요도 침체된 점등의 이유로 3년 연속 감소세에 있고 2002년 합계로는 843만대로 전년대비 87.6%로 마무리 되었다. CRT디지털TV는 계속 건투하고 있지만 비디오일체형 컬러TV는 2000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되었다.

CRT디지털TV는 저가격화와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에 의한 수요환기도 있어 45만대로 전년대비 160.2%까지 확대되어, CRT 컬러TV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5% 수준이다. 디지털튜너내장 플랫패널TV를 포함한 디지털TV 총합계의 일본 출하실적은 연63만대로 누계로는 110만대에 이른다.

이로 인해 BS디지털방송 수신기기는 시장이 시작된 2000년 6월부터의 누계는 CRT 디지털TV, 디지털튜너내장 플랫패널TV 및 디지털튜너의 합계로 약 185만대에 이른다. 본격적인 보급촉진을 정비해갈 것으로 생각된다.

《2003년~2007년》

2003년 이후의 CRT컬러TV 전체수요는 플랫패널TV의 저가격화에의해 감소세를 이어가고, 2004년에는 800만대에 미치지 못하고, 2007년에는 600만대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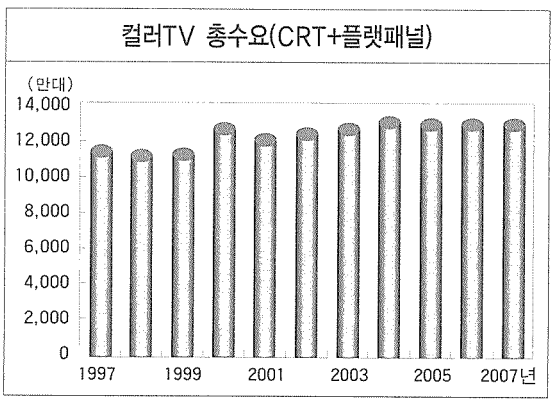
디지털TV는 2003년의 지상디지털방송 개시이후, 아날로그TV에서의 교체구매가 본격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4년의 아테네 올림픽, 2006년의 축구월드컵 독일대회 등의 국제적인 행사에 의한 수요의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CRT디지털TV는 CRT컬러TV로서는 비교적 고가지만, 구성비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2003년에 10%, 2007년에는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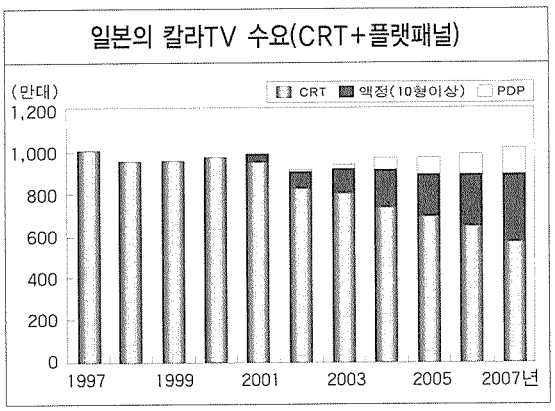
한편, 플랫패널TV는 2007년에 약 60%가 디지털내장으로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디지털TV의 반수이상은 디지털내장 플랫패널TV가 차지하게 되고 2007년의 컬러TV 전체에서 차지하는 디지털TV의 구성비는 40%까지 상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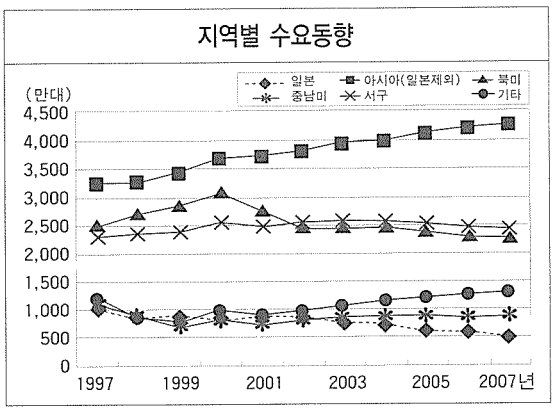
사양은 2002년까지는 BS디지털 중심이지만 지상디지털방송이 개시되는 2003년 이후의 수신기는 BS와 지상파의 공용기기가 투입되어 2005년이후는 완전히 공용기기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이후에는 디지털표준TV (SDTV)도 보급이 시작되지만 본격화는 이번 예측범위 이후로 생각된다.

비디오일체형 컬러TV는 2003년이후에도 감소경향을 보이며, DVD와 HDD 레코더로 이행할 것으로 생각되고 2007년에는 100만대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CRT컬러TV에 10인치 이상의 LCD컬러TV, PDP TV의 플랫패널 TV를 더한 TV 총수요로 보아도 2002년은 926만대로 전년실적은 8%가량 떨어진다.







이것은 경기침체에 의한 수요 냉각의 영향으로 생각되지만 플랫패널TV는 월드컵 등의 행사를 계기로 해서 교체구매 수요가 크게 신장되고 2002년은 82만대, TV 전체수요의 약 9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했다.

플랫패널TV 보급을 가속시킨 것은 저가격화라고 생각되지만 이후에도 국내외에서 제조업 참여가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저가격 신제품이 투입되는 것과 국제적인 이벤트로 인한 상승효과 등에 의해 2003년은 137만대로 성장, TV 전체수요의 약 14%를 차지할 것이다.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서 표시패널의 저코스트화가 실현되는 것을 계기로 수요는 더욱 성장하여, 2007년에는 약 42%인 430만대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컬러TV 총수요는 CRT컬러TV 수요가 플랫패널TV 수요로 전환하는 추세로, 연평균 2.2%의 안정성장이 예상되고 2007년에 1,030만대로 예측했다.

(2) 아시아(일본제외)

중국경제는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최근 다시 성장이 이어지고있고, 과잉생산과 경쟁격화에 의한 제품의 저가격화와 기업도태라고하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 그러나 수요는 견조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CRT컬러TV 수요는 2003년에는 한계상태에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제일의 수요를 보유하고 있고 2007년은 2,88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지와 수요지의 양측면에 주목한 기업에 의한 플랫패널TV의 생산도 이후 증가가 예측된다.

한국에서는 2002년에는 축구월드컵의 영향으로 서서 증가했다. 한편으로 한국기업에 의한 플랫패널TV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CRT컬러TV 수요는 점차 감소하게 되고 2007년에는 160만대로 예측했다.

(3) 북미

2001년 경기가 후퇴국면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미국테러로 수요가 갑자기 감소했다. 2002년, 경기는 침체되어 있지만 미국의 CRT컬러TV 수요는 2000년 수준에 가까운 2,800만대로 보여진다.

이후에도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 수요도 서서히 회복해 갈것으로 생각되지만 북미는 대화면 TV가 호조를 보이는 시장으로 프로젝션TV의 보급확대와 LCD·PDP TV의 대형화·저가격화 진행에 의한 영향으로 CRT컬러TV는 2004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2007년의 수요를 2,560만대로 예측했다.

미국중심의 프로젝션TV의 디지털화는 진전되고 있지만, CRT컬러 TV의 디지털화율은 아직 낮다. 2002년 6월에 FCC에 의해 지상디지털 튜너의 대형TV 내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침이 제시되어 이후의 추진과정이 주목된다.

(4) 중남미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와 미국의 경기후퇴에 의한 2001년의 침체에서, 국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요는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플랫패널TV의 영향도 적지 않아, 2007년의 수요를 1,170만대로 예측했다.

(5) 서유럽

2002년의 수요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플랫패널TV로의 수요전환에 의해 2005년이후는 점차 감소하여 2007년의 CRT컬러TV 수요는 2,497만대로 예측했다.

CRT컬러TV에서 플랫패널TV로의 이행은 영·불·독 등이 앞서가고 있지만 여타의 국가들도 2006년경부터 CRT컬러TV 수요가 주춤하게되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 각국에서는 지상디지털방송 개시되거나 계획되어 있지만 최근방송미디어의 경영부진 등에 의한 디지털방송의 중지나 계획의 연기가 이어지고 있고 디지털TV의 보급에는 한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

(6) 동유럽

서유럽경제의 영향이 크지만 러시아 경제의 회복과 이어지는 서유럽에서의 공업생산거점 이전에 의해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수요도 확대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007년의 CRT컬러TV수요를 792만대로 예측했다.

(7) 기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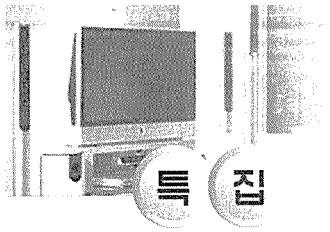
오세아니아는 2001년 수요가 하락했지만 2002년에는 회복하고, 플랫패널TV의 영향으로 2005년 이후는 점차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07년의 CRT컬러TV수요를 124만대로 예측했다.

중동·아프리카는 정정불안이 경제에 주는 영향도 있겠지만 오일머니와 인구증가에 의한 시장확대가 전망되어 2007년의 CRT컬러TV수요를 470만대로 예측했다.

CRT칼라TV · 세계수요총괄표

(단위) 수량:천대, 전년비:%

		1997年	1998年	1999年	2000年	2001年	2002年	2003年	2004年	2005年	2006年	2007年
세계계(49개국)		115,157	113,109	114,773	124,088	119,666	112,801	124,675	126,685	126,649	126,687	126,383
	前年比	103.7	98.2	101.5	108.1	96.4	102.6	101.5	101.6	100.0	100.0	99.8
아시아		42,422	42,237	43,593	46,493	46,571	46,466	47,261	47,695	48,169	48,617	48,855
	前年比	107.8	99.6	103.2	106.7	100.2	99.8	101.7	100.9	101.0	100.9	100.5
(내) 일본제외		32,241	32,582	33,996	36,620	36,939	38,033	39,061	39,995	41,069	42,017	42,855
	前年比	110.3	101.1	104.3	107.7	100.9	103.0	102.7	102.4	102.7	102.3	102.0
일본		10,181	9,655	9,597	9,873	9,631	8,433	8,200	7,700	7,100	6,600	6,000
	前年比	100.7	94.8	99.4	102.9	97.6	87.6	97.2	93.9	92.2	93.0	90.9
한국		2,231	1,422	1,600	1,750	1,800	1,900	1,850	1,800	1,750	1,700	1,600
	前年比	103.3	63.7	112.5	109.4	102.9	105.6	97.4	97.3	97.2	97.1	94.1



	1997年	1998年	1999年	2000年	2001年	2002年	2003年	2004年	2005年	2006年	2007年
대만	890	820	986	1,000	990	1,010	980	960	940	920	890
前年比	108.5	92.1	120.2	101.4	99.0	102.0	97.0	98.0	97.9	97.9	96.7
중국	21,380	23,350	23,500	23,800	24,100	24,800	25,600	26,300	27,200	28,000	28,800
前年比	113.3	109.2	100.6	101.3	101.3	102.9	103.2	102.7	103.4	102.9	102.9
홍콩특구	360	350	360	370	370	380	360	350	340	330	310
前年比	97.3	97.2	102.9	102.8	100.0	102.7	94.7	97.2	97.1	97.1	93.9
인도	2,400	3,600	4,500	5,500	5,600	5,750	5,900	6,100	6,250	6,400	6,500
前年比	126.3	150.0	125.0	122.2	101.8	102.7	102.6	103.4	102.5	102.4	101.6
태국	1,200	850	750	900	910	955	984	1,003	1,023	1,034	1,044
前年比	83.9	70.8	88.2	120.0	101.4	105.0	103.0	102.0	102.0	101.0	101.0
말레이지아	560	540	540	580	580	600	620	630	640	650	660
前年比	101.8	96.4	100.0	107.5	99.9	103.5	103.3	101.6	101.6	101.6	101.5
인도네시아	1,980	500	700	1,600	1,600	1,648	1,697	1,731	1,766	1,784	1,802
前年比	99.5	25.3	104.0	228.6	100.0	103.0	103.0	102.0	102.0	101.0	101.0
필리핀	700	680	720	750	740	750	760	770	780	790	800
前年比	106.1	97.1	105.9	104.1	98.7	101.4	101.3	101.3	101.3	101.3	101.3
베트남	680	600	480	500	400	400	450	480	500	520	540
前年比	104.6	88.2	80.0	104.2	80.0	100.0	112.5	106.7	104.2	104.0	103.8
싱가폴	220	220	220	24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前年比	107.3	100.0	100.0	109.1	91.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북미	25,195	27,022	28,680	30,850	27,770	29,503	29,500	29,720	28,770	27,840	27,000
前年比	96.5	107.3	106.1	107.6	90.0	106.2	100.0	100.7	96.8	96.8	97.0
미국	23,605	25,352	27,000	29,000	26,100	28,000	28,000	28,200	27,300	26,400	25,600
前年比	96.0	107.4	106.5	107.4	90.0	107.3	100.0	100.7	96.8	96.7	97.0
캐나다	1,590	1,670	1,680	1,850	1,670	1,503	1,500	1,520	1,470	1,440	1,400
前年比	104.6	105.0	100.6	110.1	90.3	90.0	99.8	101.3	96.7	98.0	97.2
중남미	12,190	10,770	9,440	10,960	10,420	10,518	10,814	11,065	11,328	11,540	11,703
前年比	100.2	88.4	87.7	116.1	95.1	100.9	102.8	102.3	102.4	101.9	101.4
브라질	7,800	5,800	4,050	5,300	4,700	4,888	5,035	5,135	5,238	5,290	5,343
前年比	91.8	74.4	69.8	130.9	88.7	104.0	103.0	102.0	102.0	101.0	101.0
아르헨티나	1,850	1,900	1,980	1,700	1,530	1,200	1,230	1,260	1,300	1,340	1,380
前年比	102.8	102.7	104.2	85.9	90.0	78.4	102.5	102.4	103.2	103.4	103.0
베네주엘라	270	27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前年比	90.0	100.0	48.1	100.1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칠레	770	800	880	930	960	1,000	1,020	1,040	1,060	1,080	1,100
前年比	110.0	103.9	110.0	105.6	103.3	104.1	102.0	102.0	101.9	104.9	101.9
멕시코	1,500	2,000	2,400	2,900	3,100	3,300	3,400	3,500	3,600	3,700	3,750
前年比	97.7	133.3	120.0	120.8	106.9	106.5	103.0	102.9	102.9	102.8	101.4
서구	23,240	23,920	24,005	25,620	25,420	25,755	25,910	26,110	25,630	25,300	24,970
前年比	103.2	102.9	100.4	106.7	99.2	101.3	100.6	100.8	98.2	98.7	98.7
영국	4,500	4,400	4,400	4,900	4,800	4,880	4,900	4,950	4,800	4,710	4,600
前年比	112.5	97.8	100.0	111.4	98.0	101.7	100.4	101.0	97.0	98.1	97.7
독일	5,370	5,400	5,150	5,600	5,500	5,540	5,550	5,560	5,450	5,350	5,250
前年比	95.9	100.6	95.4	108.7	98.2	100.7	100.2	100.2	98.0	98.2	98.1
프랑스	3,500	4,000	4,100	4,100	4,050	4,110	4,120	4,130	4,050	3,980	3,900
前年比	102.6	114.3	102.5	100.0	98.8	101.5	100.2	100.2	98.1	98.3	98.0

	1997年	1998年	1999年	2000年	2001年	2002年	2003年	2004年	2005年	2006年	2007年
이태리	2,700	2,750	2,700	2,750	2,700	2,735	2,750	2,760	2,700	2,650	2,640
前年比	101.9	101.9	98.2	101.9	98.2	101.3	100.5	100.4	97.8	98.1	99.6
스페인	1,950	2,000	2,100	2,200	2,200	2,240	2,240	2,250	2,230	2,220	2,210
前年比	100.0	102.6	105.0	104.8	100.0	101.8	100.0	100.4	99.1	99.6	99.5
덴마크	360	370	375	400	400	405	410	420	410	410	410
前年比	112.5	102.8	101.4	106.7	100.0	101.3	101.2	102.4	97.6	100.0	100.0
네덜란드	1,200	1,200	1,250	1,400	1,400	1,420	1,440	1,440	1,430	1,420	1,400
前年比	102.6	100.0	104.2	112.0	100.0	101.4	101.4	100.0	99.3	99.3	98.6
벨기에	500	510	550	580	570	570	570	580	570	570	570
前年比	111.1	102.0	107.8	105.5	98.3	100.0	100.0	101.8	98.3	100.0	100.0
포르투갈	700	730	760	770	780	790	810	820	810	810	810
前年比	118.6	104.3	104.1	101.3	101.3	101.3	102.5	101.2	98.8	100.0	100.0
그리스	400	440	460	480	500	510	520	540	520	520	520
前年比	114.3	110.0	104.5	104.3	104.2	102.0	102.0	103.8	96.3	100.0	100.0
스위스	440	430	420	500	570	580	590	600	600	600	600
前年比	97.8	97.7	97.7	119.0	114.0	101.8	101.7	101.7	100.0	100.0	100.0
노르웨이	340	360	370	410	420	425	440	450	450	450	450
前年比	113.3	105.9	102.8	110.8	102.4	101.2	103.5	102.3	100.0	100.0	100.0
스웨덴	400	410	420	500	480	485	490	500	500	500	500
前年比	114.3	102.5	102.4	119.0	96.0	101.0	101.0	102.0	100.0	100.0	100.0
핀란드	260	270	280	310	320	325	330	340	340	340	340
前年比	108.3	103.8	103.7	110.7	103.2	101.6	101.5	103.0	100.0	100.0	100.0
오스트리아	350	350	360	400	400	405	410	420	420	420	420
前年比	83.3	100.0	102.9	111.1	100.0	101.3	101.2	102.4	100.0	100.0	100.0
아일랜드	240	260	270	280	290	295	300	310	310	310	310
前年比	104.3	108.3	103.8	103.7	103.6	101.7	101.7	103.3	100.0	100.0	100.0
룩셈부르크	3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前年比	100.0	13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동구	7,050	3,795	3,750	4,490	4,780	5,550	5,870	6,405	6,940	7,480	7,920
前年比	112.6	53.8	98.8	119.7	106.5	116.1	105.8	109.1	108.4	107.8	105.9
러시아	5,000	1,660	1,500	2,200	2,500	3,200	3,400	3,900	4,400	4,900	5,300
前年比	116.3	33.2	90.4	146.7	113.6	128.0	106.3	114.7	112.8	111.4	108.2
폴란드	1,270	1,350	1,430	1,450	1,450	1,500	1,560	1,580	1,600	1,620	1,640
前年比	105.8	106.3	105.9	101.4	100.0	103.4	104.0	101.3	101.3	101.3	101.2
체코	480	470	490	500	495	500	540	545	550	560	570
前年比	96.0	97.9	104.3	102.0	99.0	101.0	108.0	100.9	100.9	101.8	101.8
헝가리	300	315	330	340	335	350	370	380	390	400	410
前年比	115.4	105.0	104.8	103.0	98.5	104.4	105.8	102.7	102.6	102.6	102.5
중근동	2,650	2,770	2,575	2,805	1,755	1,940	2,170	2,450	2,505	2,575	2,605
前年比	105.8	104.5	93.0	108.9	62.6	110.5	111.9	112.9	102.2	102.8	101.2
사우디라아비아	555	570	400	430	400	420	430	435	440	440	440
前年比	102.8	102.7	70.2	107.5	93.0	105.0	102.4	101.2	101.1	100.0	100.0
아랍에미라이트	180	210	340	350	300	300	310	320	330	330	330
前年比	112.5	116.7	161.9	102.9	85.7	100.0	103.3	103.2	103.1	100.0	100.0
이스라엘	205	205	215	205	190	200	210	220	230	230	230
前年比	102.5	100.0	104.9	95.3	92.7	105.3	105.0	104.8	104.5	100.0	100.0

	1997年	1998年	1999年	2000年	2001年	2002年	2003年	2004年	2005年	2006年	2007年
터어키	1,600	1,670	1,500	1,700	750	900	1,100	1,350	1,380	1,450	1,480
前年比	106.7	104.4	89.8	113.3	44.1	120.0	122.2	122.7	102.2	105.1	102.1
쿠웨이트	110	115	120	120	115	120	120	125	125	125	125
前年比	104.8	104.5	104.3	100.0	95.8	104.3	100.0	104.2	100.0	100.0	100.0
아프리카	1,300	1,425	1,505	1,600	1,700	1,800	1,880	1,960	2,040	2,080	2,090
前年比	117.1	109.6	105.6	106.3	106.3	105.9	104.4	104.3	104.1	102.0	100.5
남아프리카	500	52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600	600
前年比	100.0	104.0	103.8	101.9	101.8	101.8	101.8	101.7	101.7	100.0	100.0
이집트	500	525	550	600	650	700	750	800	850	880	880
前年比	122.0	105.0	104.8	109.1	108.3	107.7	107.7	106.7	106.3	103.5	100.0
알제리아	300	380	415	450	490	530	550	570	590	600	610
前年比	150.0	126.7	109.2	108.4	108.9	108.2	103.8	103.6	103.5	101.7	101.7
오세아니아	1,110	1,170	1,225	1,270	1,250	1,270	1,270	1,280	1,267	1,255	1,240
前年比	108.8	105.4	104.7	103.7	98.4	101.6	100.0	100.8	99.0	99.1	98.8
호주	850	900	945	970	950	960	960	960	950	940	930
前年比	107.6	105.9	105.0	102.6	97.9	101.1	100.0	100.0	99.0	98.9	98.9
뉴질랜드	260	270	280	300	300	310	310	320	317	315	310
前年比	113.0	103.8	103.7	107.1	100.0	103.3	100.0	103.2	99.1	99.4	98.4

카-A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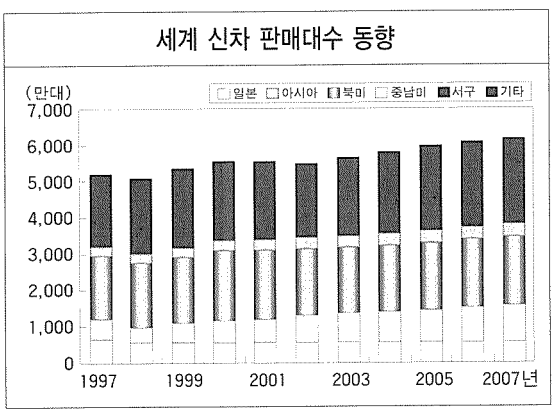
1. 신차판매예측

(1) 세계합계

2001년의 전세계 신차판매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고, 2002년도 거의 같은 추세를 보였다. 미국에서는 경제 후퇴가 염려되는 가운데 대규모 자동차회사는 작년 2001년부터 이어진 제로금리론 및 할인 등의 판매촉진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한 시책의 영향으로 2002년 미국의 신차판매는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커다란 신장은 없을 것 같다. 2003년 이후에도 끝없이 주춤 거리며 약간 증가하는 수준으로 1,700만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서유럽의 마켓사이즈도 2002년에는 1,700만대 정도로 판단되고, 이후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

(2) 일본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불황하에서의 일본에서는 2002년의 신차판매대수는 약간 전년에 미치지 못하는 579만대로 700만대를 돌파한 96년에서 보면 100만대 줄어든 수준에서 안정된 느낌



이 든다. 지금도 커다란 신장은 기대할 수 없고 600만대 정도로 2007년은 약간 증가한 605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3) 아시아

중국은 WTO가입에 의한 자동차의 수입관세의 단계적 인하, 자국에서의 생산 증가 등으로 2003년에는 300만대를 돌파하여 2007년에는 4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는 2005년, 100만대 돌파를 상정했다. 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장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3.3% 증가하고 2007년을 1,526만대로 예측했다. 이것을 2007년에도 600만대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규모는 일본의 1.5배 정도에 이를 것으로 상정했다.

(4) 북미

2001년~2002년의 신차판매는 빅 3를 중심으로 판매캠페인에 의해 소비 활성화하고 과거 최고인 2000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 이후에도 거의 같은 수준의 증가가 이어져, 2007년에는 2000년의 과거최고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5) 서유럽

2001년은 전년대비 약간 증가한 추이를 보였고, 2002년은 약간 감소하였다. 유럽의 자동차 대국 중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약간 감소하였고, 특히 독일은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이며, 스페인, 포르투갈도 전년을 밑도는 실적을 나타냈다. 서유럽 전체로는 2003년이후 2007년까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이어져 2007년의 수요를 1,825만대로 예측했다.

(6) 동유럽/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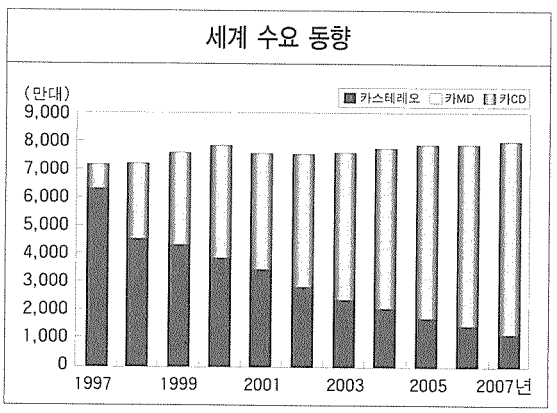
통화위기이후, 회복기조인 러시아는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폴란드는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체코, 헝가리는 신장경향에 있고2003년~2007년에 걸쳐서 순조로운 추세를 보일 것으로 상정했다. 동유럽은 2003년에 208만대, 2007년에 239만대로 예측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2002년은 전년을 밑돌게 되어 2년 연속 전년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2. 카오디오 수요동향

≪2001 ~ 2002년 동향≫

(1) 세계합계

2001년은 전년대비 96.2%, 2002년은 전년대비 99.8%로 약간 감소경향을 나타냈다. 카오디오에서 차지하는 카CD의 비율은 2001년 54.8%, 2002년 62.7%로 상승하고 있다. MD의 수요는 최대의 시장인 일본에서 2001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본 예측에서는 CD와 복합기는 카CD에 카운트하고 있다) MD플레이어는 전세



계적으로보면 이후 커다란 신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2) 일본

2002년 신차판매대수는 약간 전년도에 미치지 못했다. 카오디오는 전년대비 96.3%인 850만대이고, 전년에 이어 카오디오의 수요율이 저하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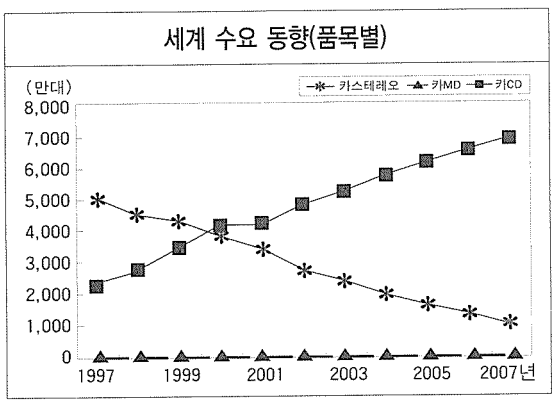
※ 수요율이란, 연간수요대수의 신차판매대수에 대한 비율

(3) 북미

2002년은 앞서 말한것처럼 신차판매 캠페인에 의해 촉진되는 형태로 수요가 이루어졌다. 카오디오도 호조였던 작년과 거의 같은 숫자를 기록했고, 2002년의 아메리카의 수요는 전년대비 100.2%인 2,554만대였다.

(4) 서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자동차 대국 중 견실한 것은 영국뿐으로 대폭적인 신장을 한것은 아니지만 견조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신차판매가 감소하고 있지만 북미쪽으로의 자동차수출에 도움을 받아 카오디오로서는 약간 증가했다. 프랑스, 이탈리아는 약간 감소했다. 서유럽 전체로는 거의 신장되지 않고 2002년은 전년대비 99.5%, 2,312만대 였다.



(5) 동유럽

러시아, 체코, 헝가리는 순조로운 추이를 보였지만 폴란드는 상당히 저조했다. 동유럽 전체로는 2001년은 161만대, 전년대비 99.7%, 2002년이 182만대, 전년대비 113.1%였다.

≪2003 ~ 2007년 동향≫

(1) 세계합계

2003년 이후 카오디오의 수요는 일본에서는 감소 경향, 미·유럽에서는 현상유지 수준인 약간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성숙된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한편,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러시아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2003년 7,632만대, 2007년 7,980만대로 예측했다.

(2) 일본

신차판매의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할 수 없고, 더구나 2002년은 신차판매에 대한 카오디의 수요율이 전년에 이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카오디오도, 카네비게이션 일체형카오디오의 신장은 전망되지만, 급격한 수요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2003년 827만대, 2007년 793만대로, 대수 기준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카세트타입의 카스테레오는 그 수요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있어 2003년 130만대, 2007년 80만대로 대폭적인 감소를 예측했다.

가정용 PC의 보급과 함께 CD-R 등을 미디어로한 MP3 등 압축 오디오의 수요가 증가하고, 시판되는 체인져타입의 수요는 감소했다. 그러나 인터슈형을 포함한 순정(자동차메이커 표준장비)는 증가하는경향에 있고, 전체적으로 MP3

등의 압축오디오와 채인져타입은 공존할 것이다. 그러나 토탈로서의 CD플레이어 수요는 소폭 신장으로 예측하여 메모리오디오는 당면한 CD 등의 종래 미디어와 공존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 카네비게이션을 포함한 일체형 상품의 등장이 예측되고 텔레메틱스와 통신형 네비게이션과 오디오와의 복합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네비게이션과 카TV를 포함한 일본의 카AVC수요(카오디오+네비게이션+카TV)는 2003년이 1,177만대, 2007년이 1,273만대로 1,200만대 규모의 시장이 유지확충되어 네비게이션을 포함한 카AVC로서는 증가하는 경향으로 예측했다.

(3) 아시아(일본제외)

2003년부터 2007년에 걸쳐서 카오디오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6%로 신장하고, 수요증가가 전망된다. 특히, WTO에 가입한 중국은 이후 대폭적인 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는 CD화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여 CD화율은 2003년에 40.2%, 2007년이 57.9%로 예측했다. 카오디오 전체로는 2003년 693만대, 2007년 740만대로 예측했다.

(4) 북미

인터슈체이저타입의 CD플레이어의 신장도 있고 CD화는 이후에도 진행되어 2007년의 CD화율은 91.0%로 했다. MD는 일본에서의 시장도입시의 기세는 보이지 않고 시장도입시의 전망보다 낮은 수요에서 안정된 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예측했다. 또한 카스테레오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고, 2003년 710만대, 2007년에는 280만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2001년~2002년, 자동차의 판매, 개인소비가 활발하였지만 카오디오 전체로는 2003년이후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2003년 2,919만대, 2007년 3,106만대로 예측했다.

(5) 서유럽

2003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카오디오 전체로는 2003년 2,340만대, 2007년을 2,412만대로 예측했다. MD는 일본시장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2003년 이후에는 감소경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CD화는 진행되어 북미와 같은 인터슈타입의 CD체인져의 신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2007년의 CD화율을 91.7%로 예측했다.

(6) 동유럽

동유럽국가는 이후 예상되는 EU가입 등으로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의 경제발전도 그 기세를 몰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동유럽 전체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3.2%의 신장으로 2003년 193만대, 2007년 219만대로 예측했다.

(7) 기타 지역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2년을 저점으로 보이며, 2003년이후 중남미 경제에서는 신차판매도 완만하지만 신장세를 보이며 카오디오의 수요도 완만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남미 전체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2.7%로 증가하고, 2003년 375만대, 2007년 418만대로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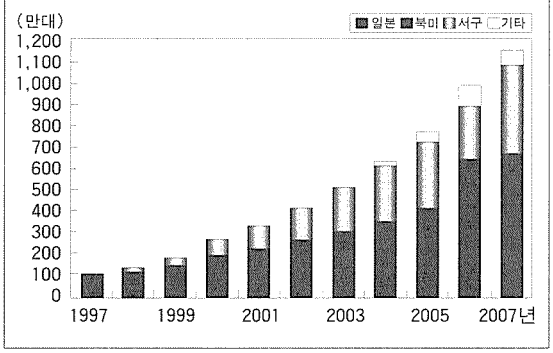
오세아니아는 유럽미국형의 성숙시장 성향을 보이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0% 증가, 2003년 109만대, 2007년에 113만대로 예측했다.

3. 카네비게이션 수요동향

≪2001~2003년 동향≫

(1) 세계합계

세계 수요 동향(카네비게이션)



2001년의 카네비게이션은 330만대, 전년대비 124.3%, 2002년은 411만대, 전년대비 124.7%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 일본

2002년은 222만대, 전년대비 116.0%로 호조였다.

「신차의 필수품」이라는 인식의 확대로 카네비게이션은 표준장치제품으로서 리더카에서 경차에 이르기까지 장비충실 경쟁이 진행되고, 그 수요는 착실히 신장되고 있다.

기능면에서는 CD, DVD, HDD타입, 가격면에서도 저가품에서 고급제품까지로 다양화되어 있다. 타입별 추이를 보면 CD는 쇠퇴경향에있고, 현재는 DVD가 중심이다. 2001년부터 등장한 HDD타입은 처리 스피드의 빠르기와 데이터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특징을 살려, 판매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켰다.(2002년의 HDD타입은 카네비게이션 수요의 10%전후로 추정) 또한 휴대전화 등을 통한 통신기능을 갖고, 정보단말기로서의 기능을 보유한 기종도 등장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2002년은 자동차 메이커 각사가 텔레메틱스(자동차용 정보서비스)를 개시하여, 이후의 수요증가가 기대된다.

(3) 북미 · 서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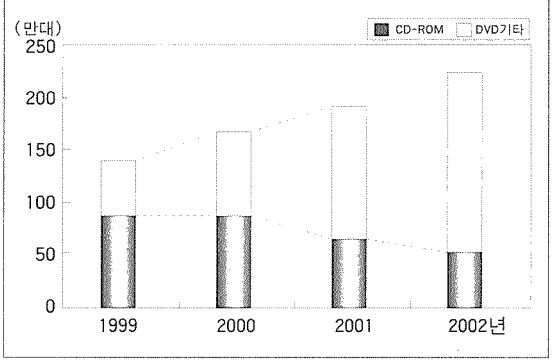
북미의 2002년은 41만대, 전년대비 132.3% 였다. 일부 고급차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형태이고, 일본, 서유럽에 비하여 수요는 적다.

서유럽의 2002년은 141만대, 전년대비 138.4%였다. 간이형 카네비게이션(화살표 표시로 방향을 알려주는 타입 등)이 주류를 이루고있고, 지도형은 고급차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일반적인 보급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4) 기타

기타 지역(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2002년은 7만대, 전년대비 134.5%였다. 오세아니아에서는 지도소프트웨어가 작성되어 있지만 가격면에서 살만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고, 또한 폭발적인 수요증가에도 이르지 못

타입별 일본 국내추하



했다. 한국, 대만, 중국에서도 지도형 카네비게이션이 순조롭게 판매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2003~2007년 동향≫

(1) 세계합계

2003년 이후의 카네비게이션 세계수요는 도로사정과 국민성을 고려하면 북미보다 서유럽에서의 신장이 기대된다. 북미에서는 텔레메틱스와의 상승효과로 2005년이후 급속히 보급할 것으로 예측하고, 2007년에는 일본 330만대, 북미 330만대, 서유럽 404만대, 세계전체로는 1,138만대로 예측했다.

(2) 일본

이후, 텔레메틱스로써 신차표준장비화는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기능면에서는 HDD타입의 증가와 통신네트워크화, 보다정밀한 3차원 지도 등의 기능확충이 예측될 수 있다. 2007년의 신차등록대수를 605만대로 하여 수요율을 55% 정도로 하여, 330만대의 수요를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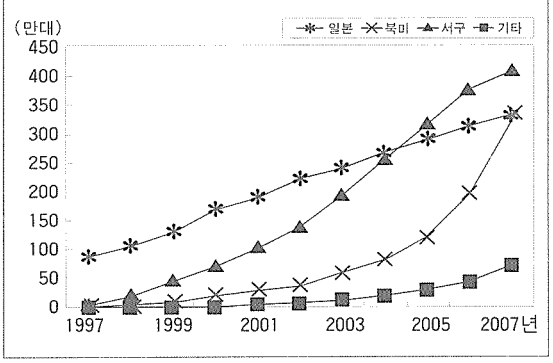
(3) 북미 · 서유럽

북미에서는 카네비게이션 기능뿐만 아니라 원격자동차 진단, 도난차량 잠금 등의 서비스의 이용확충을 기대할수 있는 텔레메틱스의 보급이 예상되어, 2005년이후, 수요증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07년도의 신차등록대수를 1,899만대로 하고, 수요율은 17%로하며, 330만대를 예측했다. 서유럽에서는 간이형 카네비게이션과 더불어, 지도형 카네비게이션과 텔레메틱스 보급과의 상승작용으로, 일본이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07년의 신차등록대수를 1,825만대로 하고, 수요율은 22%로 보아, 404만대의 수요를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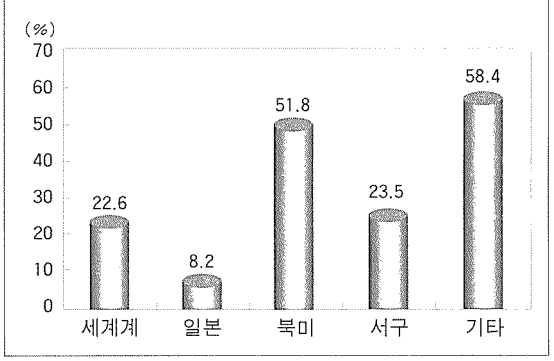
(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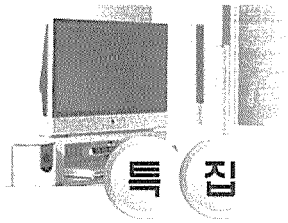
태국, 필리핀에서도 지도형 카네비게이션의 수요가 전망되고, 중국, 한국,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등, 이후 순조로운 신장을 해갈 것으로예측했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지도에 대한 군사적 제약도 있지만, 2008년의 북경올림픽, 2010년의 상해박람회를 대비하여, 신차의 수요 증가도 전망되고 2007년까지 20만대, 한국에서는 카네비게이션에 대한 필수품인식 향상으로 2007년에 40만대를 예측했다.

지역별 수요 동향(카네비게이션)



2002~2007년 지역별 평균신장율





아시아(일본제외)의 품목별 수요예측

(단위 : 천대, 전년비 : %, 전평균신장율:%)

	1997年	1998年	1999年	2000年	2001年	2002年	2003年	2004年	2005年	2006年	2007年	2002~2007年 平均伸張率
CRT 칼라TV	42,422	42,237	43,593	46,493	46,571	46,466	47,261	47,695	48,169	48,617	48,855	1.0
前年比	107.8	99.6	103.2	106.7	100.2	99.8	101.7	100.9	101.0	100.9	100.5	
VTR	10,242	9,365	8,853	8,384	7,756	6,107	4,803	4,025	3,398	3,021	2,444	▲16.5
前年比	93.0	91.4	94.5	94.7	92.5	77.6	79.8	83.8	84.4	88.9	80.9	
DVD	325	634	1,361	4,105	7,739	12,259	16,250	18,270	19,865	21,055	22,195	12.6
前年比	650.0	195.1	214.7	301.6	188.5	158.4	132.6	112.4	108.7	106.0	105.4	
비디오일체형카메라	2,230	2,094	2,187	2,402	2,318	2,488	2,557	2,771	3,065	3,263	3,427	6.6
前年比	104.5	93.9	104.4	109.8	96.5	107.3	102.8	108.4	110.6	106.5	105.0	
아날로그타입	1,297	797	582	498	376	326	227	155	121	93	68	▲26.9
前年比	75.5	62.3	73.0	85.6	75.5	86.7	69.6	68.3	78.1	76.9	73.1	
디지털타입	951	1,297	1,605	1,904	1,942	2,162	2,330	2,616	2,944	3,170	3,359	9.2
前年比	216.6	136.4	123.7	118.6	102.0	111.3	107.8	112.3	112.5	107.7	106.0	
홈비디오	36,826	34,469	36,764	38,722	38,348	37,665	38,835	39,997	41,111	42,041	42,761	2.6
前年比	96.4	93.6	106.7	105.3	99.0	98.2	103.1	103.0	102.8	102.3	101.7	
스테레오	5,988	6,047	6,823	7,132	6,868	6,862	7,160	7,480	7,755	8,030	8,270	3.8
前年比	101.1	101.0	112.8	104.5	96.3	99.9	104.3	104.5	103.7	103.5	103.0	
MD내장형	1,040	1,645	2,403	2,769	2,528	2,344	2,189	2,209	2,219	2,223	2,242	▲0.9
前年比	209.3	158.2	146.1	115.2	91.3	92.7	93.4	100.9	100.5	100.2	100.9	
거치앰프	835	849	904	1,004	1,045	988	1,025	1,047	1,066	1,086	1,096	2.1
前年比	35.0	101.7	106.5	111.1	104.1	94.5	103.7	102.1	101.8	101.9	100.9	
라디오카세트	30,003	27,573	29,037	30,586	30,435	29,815	30,650	31,470	32,290	32,925	33,395	2.3
前年比	100.3	91.9	105.3	105.3	99.5	98.0	102.8	102.7	102.6	102.0	101.4	
CD라디오카세트	4,717	5,031	5,609	6,851	6,713	6,159	6,645	6,980	7,495	7,765	7,965	5.3
前年比	96.9	106.7	111.5	122.1	98.0	91.7	107.9	105.0	107.4	103.6	102.6	
MD내장형	278	501	1,222	1,884	1,872	1,350	1,410	1,354	1,345	1,278	1,278	▲1.1
前年比	257.4	180.2	243.9	154.2	99.4	72.1	104.4	96.0	99.3	95.0	100.0	
포터블오디오	13,029	12,836	15,259	15,520	14,726	13,726	13,281	12,960	12,617	12,216	11,755	▲3.1
前年比	86.6	98.5	118.9	101.7	94.9	93.2	96.8	97.6	97.4	96.8	96.2	
포터블CD플레이어	3,582	4,189	4,996	5,393	5,959	5,965	5,911	5,951	5,956	5,898	5,788	▲0.6
前年比	120.6	116.9	119.3	107.9	110.5	100.1	99.1	100.7	100.1	99.0	98.1	
포터블MD플레이어	1,556	2,281	2,829	3,199	3,287	3,336	3,387	3,392	3,400	3,414	3,419	0.5
前年比	147.9	146.6	124.0	113.1	102.8	101.5	101.5	100.1	100.2	100.4	100.1	
헤드폰스테레오	7,891	6,366	7,434	6,928	5,480	4,425	3,983	3,617	3,261	2,904	2,548	10.5
前年比	71.5	80.7	116.8	93.2	79.1	80.7	90.0	90.8	90.2	89.1	87.7	
카오디오	15,213	13,809	14,820	16,333	15,378	15,241	15,202	15,318	15,299	15,325	15,326	0.1
前年比	102.5	90.8	107.3	110.2	94.2	99.1	99.7	100.8	99.9	100.2	100.0	
카CD플레이어	5,058	4,998	6,187	7,794	8,242	8,966	9,386	9,842	10,228	10,629	11,080	4.3
前年比	111.6	98.8	123.8	126.0	105.7	108.8	104.7	104.9	103.9	103.7	104.2	
카MD플레어	336	452	528	558	521	435	411	401	376	361	346	▲4.5
前年比	224.0	134.5	116.8	105.7	93.4	83.5	94.5	97.6	93.8	96.0	95.8	
카스테레오	9,819	8,359	8,105	7,981	6,615	5,840	5,405	5,075	4,695	4,335	3,900	▲7.8
前年比	96.7	85.1	97.0	98.5	82.9	88.3	92.6	93.9	92.5	92.3	90.0	
카너비게이션시스템	878	1,070	1,323	1,718	1,951	2,272	2,579	2,836	3,157	3,506	3,977	11.8
前年比	112.4	121.9	123.6	129.9	113.6	116.4	113.5	110.0	111.3	111.1	113.4	